

## 자매이며 어머니인 지구를 기념하며..

캐로린 타운즈, OFS, 국가 애니메이터  
정의, 평화와 창조보전 (JPIC)

내 주여, 누나요 우리 어미인 땅을 통하여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향초를 가진 갖가지 과일을 낳아 줍니다.

~ 아씨씨의 성프란치스코의 태양의 노래 중에서.

“LAUDATO SI’, mi’ Signore” – “나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이 아름다운 노래에 담겨있는 말에서 아씨씨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의 공동의 집은 자매처럼 우리의 삶을 나누고, 아름다운 어머니처럼 그녀의 팔을 열어 우리를 품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 주여, 누나요 우리 어미인 땅을 통하여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향초를 가진 갖가지 과일을 낳아 줍니다” ~ Laudato Si 시작하는 말 중에서, 2015



올해는 지구의 날 50 주년 기념이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대망의 회칙인 라우다토 씨 (Laudato Si) 5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정표는 환경적 정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와 흥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공동의 집인 땅에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막대한 피해에 한줄기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의 날은 우리의 자매이자 어머니이인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지원을 보여주기 위해 4 월 22 일에 전세계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입니다. 지구의 날은 우리가 공동의 집을 계속 돌보아야한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 돌봄을 소홀히하고 지구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라우다토 씨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부여하신 재물의 무책임한 사용과 남용으로 우리가 그녀에게 가한 피해 때문에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녀를 약탈 할 자격이있는 그녀의 주인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상처를 입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성은 토양, 물, 공기 및 모든 형태의 삶에서 나타나는 병의 증상에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가장 비참하게 버려지고 학대받는 우리의 빈민 중에서 짐과 쓰레기들 뒤집어 쓴 채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구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지구의 성분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녀의 공기를 숨쉬며, 생명과 원기 회복을 그녀의 물로 제공받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800 년 전에 우리의 자매이자 어머니인 땅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다스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썼습니다. 은혜를 갚는대신에, 우리는 손해와 피해를 입힘으로써 그녀의 얼굴에 대고 비웃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 하느님의 사람들과 땅을 포함해서 입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SCCB)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께 그분의 창조물을 돌보는 청지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지구를 돌보는 것은 단지 지구의 날 구호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지구를 보호하고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이 환경 문제는 무시할 수없는 근본적인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그의 2009 년 회칙 까리타스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는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미래의 세대에게, 전 인류에게 사용할 책임을 가집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간에 대한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의 의무는 유지하면서 다른 하나를 짓밟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48. 51)*

마지막으로, 거룩한 규칙 제 18 조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의 각인을 가진” 모든 피조물, 생명체, 무생물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물 착취의 유혹에서 보편적인 연대감이라는 프란치스칸 개념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멋진 제안이나 그림의 떡 같은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 공언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재속회원으로서는 우리의 거룩한 규칙한 말들과 지구를 어머니요 자매라 불렀던 우리의 천상의 아버지 프란치스코 성인을 계속 기억합니다. 자매이자 어머니인 지구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이 보여주신 공경과 존경을 항상 보이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